

박근혜 '경선 중재안' 사실상 거부

파국 치달는 한나라... '두 나라'로 가나

朴 "모두 다 어그러졌다...기가 막히다" 중재안 무력화엔 지도부 사퇴 등 혼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제 시된 강제선거 대의의 대선 후보 경선 규칙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내분 사태는 물론,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 측의 갈등이 이미 봉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결국 한나라당의 분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강제선거 대표가 9일 선거인단 확대와 일반국민 투표를 제고

방안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자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는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표측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다"며 거부의 기류가 지배적인 반면, 이 전 시장측은 "마흡하지만 일단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수용쪽을 검토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중재안이 발표되자 박 전 대표 캠프는 한마디로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되었다. 국민투표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준 것이나 동시투표를 허용해 준 것이나

모든 게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표 캠프에서는 "믿었던 강 대표에게 뒤뚱수를 맞았다" "강 대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격한 말까지 나왔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중재안 발표 직후 서청원 전 대표 등 중진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하루종일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내부 기류는 중재안 거부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였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박 전 대표도 강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첫째 기본 원칙이 무너졌고, 둘째 당헌 당규가 무너졌으며, 셋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너졌다"며 중재안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 전 시장을 겨냥, "자신이

■ 한나라 경선규칙 변화 비교

	혁신안	경준위안	강대표 중재안
경선시기	선거일 180일전 (6월22일 이전)	선거일 120일전 (8월21일전)	선거일 120일전 (8월21일전)
선거인단 규모	4만명 2:3:3: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20만명 2:3:3: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선거인단 0.5%(23만1천652명) 2:3:3:2(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
여론조사 반영방법	대의원 및 당원, 일반 국민 유효투표의 20%	미정	대의원 및 당원, 일반국민 유효투표의 20%, 당, 유효투표 산정시 일반 국민투표율 3분의 2(67%) 반영

확실히 이기는 규칙이 될 때까지 규칙을 바꾸고 또 바꾸자는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까 많은 분들이 웃는데 그 스톱 칠 때도 틀이 있다. 한 번 이렇게 하자고 하면 화투 치다가도 틀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당헌·당규 82조에 규정된 유효투표의 20% 반영 규정에도 어긋나며 민주주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 표는 1표, 다른 지역사람 표는 2표 또는 짧은 이는 1표, 노인은 2표 식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더 어그러졌는데 기가 막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지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시장측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반영된 것을 보면

이 전 시장측은 중재안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제선거-이명박측 밀약설"을 제기했다.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중재안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캠프에서 '민심(반영)에 대한 비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그동안 제가 일관되게 중재안을 존중한다고 해왔기 때문에 불만스럽긴 하지만 국민과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일기로 혼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10일 중재안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지도부 총사퇴론이 재연되면서 당 전체가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심우위'李측 유리...투표율이 관건

중재안 누구에게 유리한가

한나라당 강제선거 대표가 9일 내놓은 경선룰 중재안을 둘러싼 각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이 중재안 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중 누구에게 유리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중재안은 당초 20만명이었던 선거인단 규모를 전체유권자의 0.5%인 23만1천652명으로 늘리고, 논란이 돼 온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당원, 대의원 및 국민투표 유효투표의 20%'원칙을 적용하되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국민 선거인단 투표에 3분의2(67%) 하한선을 보장했다.

이 경우 각각 4만, 6만, 6만, 4만명(대의원,당원,일반국민,여론조사)이었던 투표인단이 각각 4만6천330, 6만9천495, 6만9천495, 4만6천33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당 지도부의 주장대로 대의원 및 당원, 일반국민 투표율을 각각 80%, 70%, 50%로 가정할 경우 각각 3만7천64, 4만8천646, 3만4천747명의 대의원 및 당원, 일반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동일한 투표율을 전제할 때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현재대로는 65%, 중재안을 따르면 71.325%로 각각 추산되며, 후자의 경우 비율이 6%

포인트 가량 증가한다.

일단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민심'에서 우위를 주장하는 이 전 시장측에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전담대회에서 강제선거 대표가 이재오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최고위원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현행 방식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된 점에 상당부분 기인하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에서 승세를 잡았던 이유도 일반국민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그나마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4대 6으로 가정한 한나라당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대로라면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각각 1만1천960표와 1만7천940표(표차 5천980)를 나눠 갖는 반면, 중재안 적용시에는 1만3천133표와 1만9천699표로 표차가 6천566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인단 규모가 늘면서 당원,대의원단 투표인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들 투표율이 일반국민 투표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당심'에서 우위를 주장해 온 박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강제선거 대표가 9일 연합뉴스 등에서 당내 경선 선거인단 규모를 전체 유권자의 0.5%로 해서 23만1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경선룰을 발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 줄어드는데 모든 사업 손 놓으란 말이나”

중부세 중앙정부 예산화 추진...지자체 반발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액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부세 등의 여파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 지방세 전망치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가뜩이나 지방세수의 감소로 구조적인 재정난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등 지방정부로서는 중부세 배분산식마저 바뀌면 이중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 지방재정 타격 =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중부세 규모는 2006년말 1조7천179억원에서 2007년에는 1조1천635억원, 68%가 증가한 2조8천81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부세 납부 세대도 2006년 34만1천세대에서 2007년에는 50만5천세대로 집계됐다.

중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수(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감소분'을 전액 중부세로 보전한 뒤 나머지도 배분산식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이처럼 중부세는 각종 지자체의 고된 발전을 위한 '균형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당초 입법 취지다.

이에 따라 2007년 중부세액 추계치 2조8천814억원에 올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액' 1조1천500억원을 전액 보전해준 뒤 나머지 1조7천314억원이 배분산식대로 각급 지자체에 주어진다. 배분된 중부세 예산은 사용처 지정없이 전액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기존 산식의 비중을 줄이고 참여정부 주력분야인 사회복지·교육 등 중앙정부 예산으로 담당해야 할 '분배' 분야에 중부세액을 특정에 배정하면 그만큼 '균형재원' 규모는 줄어든다.

이 경우 각급 지자체는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들게 돼 기존 계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광주와 전남은 중부세 배분산식에 따라 지난 해 각각 428억원, 664억원을 배분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경우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지방세수마저 축소되고 있어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일반 재원으로 활용

해오던 중부세마저 줄어든다면 기존의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산전용 여부' 논란 = 정부가 중부세액의 배분산식을 바꾸려 하는 데는 중앙부처간 예산확보 싸움이 배경에 깔려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생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층 초중고생 급식비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국가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예산은 한정된 반면 예산수요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눈을 돌리게 된 곳이 '중부세'라는 게 재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중부세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 각 중앙부처가 중부세의 직간접적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중부세액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사용처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예산전용은 아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전당 랜드마크 논란 끝낼 방안 제시하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성명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대표 박철호)은 9일 '광주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논란과 관련, 시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향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또 "광주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해 광주공장의 국제선 기능 존치와 함께 조속히 개항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나아가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행는 무등산의 친환경적 보존 및 개발문제와 관련, 다음달 중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Do it now!

100%

100%

100%

메가급

만명 돌파

* 일부 지역에서는 공인연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07년 3월 말 기준

단독주택까지 100%! 내 집까지 광속 100메가급!
100만 고객이 선택한 하나포스 광랜을
광주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포스 백백백 페스티벌

- 행사대상 : 1600-8000 또는 www.hanaro.com으로 가입한 하나포스 신규고객
- 행사기간 : 2007년 4월 1일 ~ 2007년 5월 31일
- 행사내용 : 행사1 - 기간내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 닌텐도 DS 라이트 증정
당첨자 발표 : 6월 12일 www.hanaro.com (경품당첨 시 제품공과금 당첨자 부림)

행사2 - 2년 약정 이상 모든 신규 가입고객에게 시은품 증정 (택1)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
하나포스+하나폰+하나TV, 동시 가입고객 (하나포스 3년 약정 기준, 택1)

- 로체스 인라인 (가방, 보조배터리 포함)
- 엠피오 MP4 (1G)
- 하나포스+하나폰, 또는 하나포스+하나TV, 동시 가입고객 (하나포스 3년 약정 기준, 택1)
- USB HDD (2.5인치, 60G)
- 신용 청소기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
하나포스 가입고객 (3년 약정 기준, 택1)

- 오피스 복합기
- 사파리 이미지 촬영용 냉온냉기
- 환경회 스티밍 청소기
- 하나포스 가입고객 (2년 약정 기준, 택1)
- 바디 습면터
- 바버리스 크리스탈 헤어케어 드라이기
- 필립스 필라세이프 2세대 면도기

www.hanaro.com으로 가입하시는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추가사은품을 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2 SET:
유틸리티 (1.4L) 1 SET (3P) + 도어포팅형 (450mm+850mm) 1 SET (3P)
* 상기 시은품은 신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1600-8000

www.hanaro.com

hanaFos